3강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끈 동력 I

1교시 독일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

▲ 라인란트의 상류와 하류의 구분

오늘은 독일로마네스크부터 나가겠어요. 오토대제(Otto I), 저 사람은 역사에 등장하는 몇 안되는 대제라는 이름이 붙는 황제였죠. 이 사람이 오토왕조를 이뤄요. 오토왕조 자체는 정치사적으로는 936년부터 1024년, 11세기 중반까지예요. 보통 오토왕조가 성립한 건축을 독일의 초기 로마네스크(Romanesque)라고 불러요. 이 오토 건축은 제1북부 로마네스크를 대표하는 건축이 됐어요. 남부 로마네스크와 정치적으로는 대비가 있지만, 종교예술 쪽으로는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독일의 초기 로마네스크는 크게 작센(saxony)지방과 라인란트(Rheinland) 지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작센지방은 독일 내에서 중부 속으로 들어간 지방이에요. 라인강 자체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를 흐르죠. 독일은 위치가 중부유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면적이에요. 유럽의 양쪽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서유럽하고 동유럽. 베를린이 폴란드라든가 체코 등 대체적으로 동유럽을 담당하는 도시였고, 서유럽을 담당하는 지역은 라인강 유역에 있어요. 라인강 주변의 쾰른을 비롯해서 큰 도시들이 쭉 라인강을 따라 있게 되죠. 라인강 주변은 공업지역이었고요. 이걸 라인란트라고 불러요.

라인란트도 상류와 하류로 나누게 되요. 알자스(Alsace),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 할 때, 알자스 중심의 상류지방과 모젤(Moselle) 계곡 중심의 하류지방으로 다시 나뉘어져있단 얘기죠. 작센지방을 먼저 보면, 게른로데(Gernrode)와 힐데스하임Hildesheim) 이 두 도시가 중심도시였고요. 대표적인 건물은 [그림 170~172]까지 나와 있는 게른로데의 작센지방 초기 로마네스크 건물인 성 키리아쿠스(St. Cyriacus)예요. 목조평천장과 대형공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독일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 위에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어요.

평면을 보면, 이스트엔드, 이걸 보면 더블엔더인데, 출입구는 위쪽 개구부(開口部) 네이브, [그림 170] 평면의 아일 위쪽 보면 개구부가 두 개 있어요. 오른쪽에 계단 있는 개구부가 주출입구고, 왼쪽의 조그만 모서리 정사각형 공간에 있는 게 부개구부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엔더죠. 그 중에서도 오른쪽 부분, 더블엔드 중에 이스트엔드가 잘 정리 되어가죠. 그래서 두베이(2bay)의 성가대석에 엑스가 붙어요. 트란셉트(transept, 익랑)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단이 있고, 여기가 성가대석이죠.

여기 두 베이(bay) 중 여기가 성가대석이고 이게 앱스(apse:後陣)예요. 트란셉트가 있었으면 여기가 크로싱(Crossing)이 될 수 있는데, 트란셉트가 없기 때문에 크로싱은 아니고, Forechoir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번역 하면 이 말이 ~의 앞이라는 말이라서 성가대석의 앞쪽이라고 해요. 이런식으로 이스트엔드 공간이 정리가 된 게 이 건물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두 번째는, 네이브월(Nave wall)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림 171]보면 3단구성이 나타나요. 아케이드, 갤러리, 천측창. [그림 171, 172]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3단구성은. 이게 아직 미완성이에요. 3단 구성의 완성된 모습은 뒤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32페이지 [그림 694, 695] 이런 식으로 기둥 위아래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야 해요. 완성적인 상태는요. 이 건물(St. Cyriacus)를 보면 중간에 딱딱 끊겨있어요. 3단 구성을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아주 초보단계, 갓 태어난 걸음마 단계로 보면 돼요. 어쨌든 3단 구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발전 중 하나고요.

세 번째는 실내벽을 추상적 분위기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독일 로마네스크의 특징 중 하나고요. 네이브월의 기둥이 정리되었죠. 그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170평면이에요. 네이브월의 기둥을 자세히 보면, 이거랑 이거랑 다르게 되어있어요.

그 모습이 [그림 172] 왼쪽 아래 기둥 보면 조금 보여요. [그림 171] 왼쪽 아래 1층 아케이드 기둥이요. 이게 주기둥이고 이게 부기둥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세 건축 전체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둥이 주기둥 부기둥으로 나뉘는 것은 두가지 이유를 가져요. 하나는 구조적이유, 하나는 리듬감이에요.

구조적 이유는, 이게(주기둥, 부기둥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주기둥이 천장 하중까지 주로 담당을 하죠. 물론 이제 네이브월 위에 그 위쪽의 네이브월 하중도 받아야되겠죠, 바로 위에 있는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천장하중을 받지요. 부기둥도 천장 하중을 안받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네이브월의 하중만 담당을 해요. 그런 구조적 효율성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주기둥과 부기둥의 구성

기둥은 주기둥이 크고 겹이 많아요. 사각기둥일 수도 있어요. 부기둥이 작고요. 주기둥과 부기둥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형태 자체를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주기둥은 크고 많고, 부기둥은 적고 가늘어요. 이것이 교대리듬(alternating rhythm)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주기둥을 a, 부기둥을 b라고 하면 이 건물은 abab예요, 제일 평범한. abab기둥은 라인기둥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은 작센지방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리듬은 라인리듬이 쓰였어요.

작센지방에서는 abba인데, 저 것을 작센리듬이라 그래요. 저것은 리듬만 의미하는 게 아니예요. 베이(bay)를 봤을 때, 이건 건물 규모가 작고 초창기 건물이라 여기서 끝나요. 만약 이게 계속 된다고 보면, 이게 한베이에요. 중세성당에서 베이는 주기둥의 센터(center)에서 센터까지를 한베이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역할이 완성된 주기둥과 주기둥을 한베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베이가 주기둥 2, 부기둥 1로 세 개의 기둥으로 한베이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작센리듬은 주기둥 2, 부기둥 2 해서 네 개의 기둥으로 한베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세 건축의 표준형은 라인리듬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나, 나중에 고딕때 가면 전부 라인리듬로 바뀌는데, 작센리듬이 예외적인 경우지요. 기둥 네 개만 쓰이기 때문에 베이 간격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좀 넓은 게 특징이에요.

4번까지 내용들이 로마네스크 건축이 이제 정리, 정착되어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발전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네이브월의 구성 같은 경우, 나중에는 3단이 위아래가 합쳐가면서 높이 올라가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목천장이지만 나중에 석조천장과 합쳐지죠. 반면 이 건물에는 불일치도 남았어요.

[그림 172]를 자세히 보면 아케이드는 아치 두 개가 한베이를 이루는데, 갤러리는 아치 세 개가 한베이를 이뤄요, 자세히 보면. 갤러리를 보면 베이 하나가 큰 아치 세 개, 작은 아치 여섯 개죠. [그림 172]에서 갤러리 층의 베이를 보면 한베이가 큰 아치 세 개, 작은 아치 여섯 개로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괜찮은데, (네이브월) 이것도 사실은 불일치죠, 진공부와 구조부, 이 중간부분은 진공부와 구조부 사이의 불일치가 일어난거고요. 구조부가 진공부를 받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나 불일치는 불일치예요.

더 문제는 여기지요. 아치에서 제일 취약한 지점 위에 부재가 놓인다는 얘기죠. 이런식으로 위아래 불일치가 나타난단 얘기는 아케이드와 갤러리 층의 아치 축조 때 구조적으로 충분히 작동을 못한 상태에서 시각적 요소로 구멍을 뚫어놨단 얘기죠. 이런 게 아직은 이 건물이 초기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고요.

게른로데의 이 건물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게 힐데스하임에 있는 성미샤엘(St Mary's Cathedral)이에요. 이 건물에서는 갤러리 층이 다시 없어져요. 목조평천장도 같고, 추상적인 벽체 분위기도 같죠. 희게 남긴 평화의 벽면이 굉장히 많아요. 게른로데로부터 상당히 추상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거지요. 갤러리 층이 없어진 것은 오히려 더 후퇴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발전한 내용도 있어요. 발전한 내용은 146페이지 밑에서부터 나와요. 기둥처리, 더블엔더, 탑의 역할의 강화. 작센리듬이 나타나요. 작센리듬은 설명 들었으니까 알 수 있을텐데, 평면 177을 보면 주기둥 하나 사이에 부기둥이 두 개가 들어가죠. 내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중세 건물의 평면을 읽어내는 기준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도면을 읽을 수 있네 없네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도면에 있는 것이 건물마다 기준이 틀려요. 요즘 건물들은 테크놀로지 측면을 많이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중세 건물은 도면을 읽을 수 있는 기준 중 이 기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주기둥 하나 사이에 부기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평면에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걸 입면에서 확인한 게 [그림 174~175]예요. 두꺼운 흰 사각기둥이 주기둥이고 회색의 가느다란 원형기둥이 부기둥인데, 주기둥 하나에 부기둥 두 개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작센리듬이 안착이 됐고요.

[그림 177] 보면은 더블엔더 이런 게 잘 정리가 되고요. 특히 [그림 173]이 더블엔더의 외관상 건물을 찍은 거고요. 이건 전경이 다 안 나왔어요. 더블엔더가 외관에서도 보이는 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경이 나온 게 [그림 178]이에요.

특히 177 평면으로 다시 가보면 더블엔더가 트란셉트를 각각 갖죠. 트란셉트도 두 개예요, 지금 보면. 트란셉트도 두 개고, 각각이 렌턴타워라 그래요. 크로싱부에 올라가는, 트란셉터 위아래 붙은 조그만 반원공간은 랜턴타워가 아니라 계단실타워이고요. [그림 178]에 오게 되면 앞쪽에 서 있는, 작은 연필처럼 긴 것이 계단실 타워예요. 크로싱 부에 올라가는 정사각형 타워가 랜턴타워예요. 이런 식으로 외관에서 네스 정리가 상당히 잘된 건물이죠, 이거는. 이런 게 나중에 로마네스크 표준형로 가면은 평면, 입면,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완성된 형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얘기죠.

▲ 라인란트 하류의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

그 다음에 라인란트 하류. 아헨이 라인란트 하류 중 위쪽 북부지방인데도 가장 하류예요. 왜냐하면 강이 위쪽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죠, 함부르크(Hamburg) 쪽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아헨이 위쪽에 있지만, 그걸 강의 입장에서 보면 하류란 얘기죠. 거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아헨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대형공간을 대표적 특징으로 가져요. 신성로마제국이 카롤링거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아헨 예배당을 이어받아 대응공간을 만든 특징을 가지고 있단 얘기죠. 대응 공간의 롱스팬(Long span)은 목조트러스고, 높은 천장은 굵은 돌기둥이 있어요. 돌로 지을 때는, 롱스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치예요.

이게 나중가면 볼트(vault)가 되는 거죠, 고딕성당까지. 목조인 경우 롱스팬이나 트러스로 지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더 많이 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이게 지어질 당시로는 기술이 불완전 했기 때문에, 당시로만 보면 목조트러스가 롱스팬을 만드는데 더 유리했단 얘기예요. 이 건물은 목조트러스로 롱스펠이나 대응공간을 만들고, 천장은 그다음이죠. 높이는 굵은 돌기둥으로 하고요. 그래서 천장과 돌기둥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났단 얘기구요.

쾰른의 상크트 파탈레온인데요. 세인트(Saint)를 독일어로 하면 상크트(Sankt)죠. 성 누구누구 할때요. 불어는 스펠링은 같고 발음만 달라요. 불어로는 생(Sankt), 독일어는 상크트(Sankt), 이태리어는 산(San) 혹은 산토(Sainto)예요. 여성은 경우, 불어는 Sainte죠. 이태리어는 여성은 a가 붙고, 남성은 o가 붙고요. 산타마리아 그게 저기서 나온거죠. 어쨌든 쾰른의 상크트 파탈레온이 대표적인 특징이고. 웨스트워크의 외관에 롬바르디아 밴드를 쓴 점 이런 것들이 또 특징으로 볼 수 있단 얘기죠. 롬바르디아 밴드는 제1남부로마네스크에서 쓰던 것인데,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토 왕조가 정치적으로는 제1남부로마스크와 대립을 했지만, 건축예술 쪽으로는 교류를 했고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롬바르디아 밴드고요. 에센 수도원성당은 앞에서 봤던 아헨성당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지요. 64페이지 [그림 67]을 보세요. 그것과 [그림 182]를 비교해보면은, 이 지역에 남아있는 아헨성당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 다음에 트리아(Trier) 성당. 트리아 성당은 증축이 많이 되어서 원래 상태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림 284]보면 오토 시대 때 지어진 건 더블엔더로 지어졌고, [그림 183]이 지금 실내모습이에요. 석조볼트 천장으로 되어있지만, 오토왕조 때 지어진 것은 목조평천장이었어요. 지금상태는 나중에 증축된 거고요. 네이브월의 기둥, 롬바르디아 밴드 이런식으로, 초기 로마네스크의 특징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 슈파이어 성당의 건축

라인란트 상류지역에서는 초기로마네스크 건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하류지역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였어요. 네이브월의 구성이 정리된 점을 대표적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아직 2단구성에 머무르는 게 표준형이었으나 3단 구성으로의 발전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요. abab의 라인리듬이 정착을 했어요.

[그림 188, 189, 190] 보면, 188과 189는 더블엔더 외관 전체의 네스 구성을 보여주는 거구요. 189보면 트란셉트가 더블엔더 중 오른쪽 부분이고, 오른쪽 위 네스는 트란셉트가 아일 벽면에서 끊겨요 사실. 끊기는 끝에 연필까지 뾰족한 계단실 타워가 달라붙긴 하는데, 왼쪽의 앞쪽 부분은 트란셉트가 분명해요. 아일 벽면보다 많이 돌출해있고요.

오른쪽 위쪽도 보면 벽성은 아일 벽면에서 끊기는데 높이를 보면 끄트머리 모서리 부분은 아일보다 천장이 높아요. 네이브와 천장이 비슷하죠, 천장 높이가. 이런걸 봐서 트란셉트의 구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어요. 더블엔더인데, 외관에서 크로싱 중심의 랜턴 타워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식으로 외관이 정리가 잘 됐어요. [그림 190]보면 더블엔더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라인란트 상류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은 Speyer(슈파이어)예요. 이 슈파이어도 도시 이름이에요. 슈파이어 성당은 두 번의 증축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로마네스크 때 지은 것을 제1슈파이어, 성기 로마네스크 때 지은 것을 제2슈파이어라 그래요. 프랑스 로마네스크 때, 부르고뉴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건축물이 클뤼니(Cluny)라 그랬는데, 독일은 슈파이어가 클뤼니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클뤼니는 제1, 제2, 제3, 세 번의 공사가 있었고 슈파이어는 제1, 제2 두 번이죠. 두 도시는 로마네스크 건축의 경쟁을 이끈 라이벌 관계였고, 경쟁이 심했어요. 라인란트 하류의 슈파이어, 제1 슈파이어가 저런 경쟁이 시작된 이런 초창기, 초기 독일 로마네스크가 등장한 건물이죠.

증축이 일어난 제2슈파이어는 뒤에 성기 로마네스크 때 다루게 돼요. 지금은 본 상태가 안 남아있지만 기초는 남아있어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평면은 181처럼 비교적 완성도 높은 추측복원, 상상복원이 남아있고요. 이걸 기초로 외관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죠. 네이브월이 문젠데, 다행히 제2슈파이어를 지을 때 완전 허물고 다시 지은 게 아니라 제 1슈파이어의 네이브월 골격을 많이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림 194]처럼 네이브월에 대한 상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제1슈파이어에서의 건축적 발전

제1슈파이어의 발전내용을 보면 평면이 상당이 많이 정리가 됐죠, [그림 190]에 보면. 아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모듈까진 안나갔어요. 거의 모듈의 초기단계로 정착이 된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워크 출입구 아래쪽, 이스트엔드, 더블엔드에서 벗어나서 이스트엔드와 웨스트워크의 표준구성으로 정착이 되어있죠.

웨스트워크에는 1층은 통로고 2층에는 합창단석이 하나 더 놓였어. 그걸 후면합창단석(retrochoir)이라 불러요. 후면합창단석은 제2슈파이어 같은 경우는 웨스트 워크에 놓이는 거죠. 이것은 워낙에 영국 로마네스크와 고딕, 영국 중세건축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법이에요. 영국 중세성당은 굉장히 길어요, 수평선으로.

고딕성당이 대체적으로 수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건 구조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완성이 되죠. 이 것이 독일로 전파가 되는거고요. 영국에서는 높이는 많이 안올라가고 수평선으로 많이 뻗어나가요. 수평적으로는 100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수두룩해요. 우리가 아는 링컨성당, 웨스트성당 가보면 전부 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0미터가 넘어요.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건물이 거의 트란셉트를 기준으로 양쪽이 거의 같아져버려요. 늘어난 게 어디서 늘어나냐 하면, 트란셉트보다 동쪽에서 늘어나는 거죠. 네이브 길이는 거의 트란스나 이쪽이나 같은데, 이게 동쪽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성가대석이 두 개 생기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뒤에 있는 것을 리트로콰이어(retrochoir)라 그래요. 제1슈파이어만은 동쪽에 같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죠. 191평면도 보면 중앙에 출입구 위층 쪽에 성가대석이 하나 더 놓여서 후면 성가대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엔드는 정리가 잘 됐어요, 그렇죠. 크로싱이 있고어요. 크로싱에서 앱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크로싱이고 이게 앱스, 여기가 성가대석이죠. 그래서 앱스와 성가대석만 합쳐서, 슈베트(chevet)라고 불러요, 과자 이름이 아니라. 성당 이스트엔드 부분 쪽에서 성가대석과 앱스만 합쳐서 슈베트라고 불러요. 이런 게 정리가 잘 된거죠, 여기는. 이렇게 평면에서 정리가 됐었고요.

두 번째 평면에서 중요한 발전은 구조부예요. 여기서는 아직 교대기둥이 안쓰여요. 주기둥 부기둥이 없고, 한 가지 사각기둥 하나만 쓰이게 되죠. 그 대신 여기서는 무슨 중요한 발전이 있냐 하면 코어기둥에 덧기둥을 하나 덧붙여요.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174, 175로 가봐요.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니까. [그림 174, 175]로 가보면, 기둥은 주기둥 부기둥이 나타났는데, 기둥 그 하나하나 보면 독립기둥이에요. 하나로 끝나요.

그런데 [그림 194]를 보면 본기둥 위에 뭐가 달라붙어있는 게 보여요? 본기둥 위에 뭐가 달라붙어 있다고, 여기는. 보여요? 이렇게 되어있다구요, 잘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코어기둥이라고 불러요. 핵심기둥이니까. 덧붙인 것을, 대응기둥이라고 불러요. 혹은 콜로네트(colonet)는 작은 기둥이,

net라는 게 '소'라는 의미의 접미사잖아요. colon의 작은 것이라고 해서, 작은 소기둥이나 덧붙이 기둥을 콜로네트라고도 해요. 대응기둥을 레스폰드(respond)라고도 하고요. 레스폰드가 원래 뜻이 '응대하다' 이런 뜻 이에요. 이게 중요한 발전이에요. 코어기둥에 대응기둥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이 덧붙은 시스템을 다발기둥이라고 불러요, 다발기둥.

지금 여기선 하나만 붙었는데 이게 나중으로 가면 다발이 여러 개가 돼요. 그게 왜 여러 개가 되냐면, 이게 지금은 목천장인데 석조 볼트천장이 되면서 이게 올라가서 볼트 라인하고 합쳐져요. 볼트라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발기둥도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림 701~703]을 봐요. 다발기둥이 쓰인 예는 무척 많아요. 고딕 쪽 보면 다 그 예로 볼 수 있죠.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면, [그림 701-703]은 코어 기둥 위에 다발 기둥이 여러 개 붙으면서 천장 볼트라인하고 대응기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결과예요. 이게 또 중세 건축의 완성점 중의 하나예요.

중세 건축의 완성점을 모아놓은 게, 목차로 가보면 9장 성기 고딕이에요. 1. 성기 고딕의 구조적조건 부분이죠. 기둥과 리브, 다발기둥, 네이브월, 플라잉버트레스, 이런 게 중세 건축의 최종 완성점이에요. 완성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각 건물마다 얘는 이걸 시도해보고 저건 저걸 시도해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대기둥은 단일기둥보단 발전한 시스템이에요. 단독기둥보다는 대응기둥을 갖는 게 발전 시스템이고요. 앞의 예들은 교대 기둥이었던 대신에 대응기둥은 못 가졌어요. 제1슈파이어는 교대 기둥은 아닌 대신에 대응 기둥을 가졌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반쪽씩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한번에 큰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진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초기 로마네스크를 마칠게요. 성기 로마네스크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건축적인 발전, 건물 차원에서의 건축적 발전 이외에 기독교 차원에서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끈 아주 그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수도원, 하나는 순례여행이라는 거였어요. 수도원을 먼저 볼게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3강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끈 동력 I

2교시 수도원의 발전

▲ 수도원의 발생

수도원은 원래 말 그대로 수도를 위한 공간이죠. 3-4세기 기독교의 승리라고 하는 교회사에서는 저때 로마가 망해가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인정받고 로마국교까지 되면서 로마를 점점 잠식해 들어가죠. 이때 이미 세속화나 화려해지는 등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초기 기독교 때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수도하던 공간이, 말 그대로 수도원이에요.

프레 로마네스크(pre-Romanesque) 때 수도원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뉘어요. 기독교가 너무 현실권력에 개입해서 황제도 갈아치우고,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야 황제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싸우고 죽이고 했죠. 개인주의는 이게 종교로서 할 짓이 못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참뜻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격리수도를 계속 고집해요.

집단주의는 현실참여예요. 수도원이 현실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작은 도시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당시 경제라고 해봤자 농업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약간의 가내 수공업을 포함해서 주변의 일정한 면적의 농업에 대해서 징세권 등, 주변에 경제적 권력을 행사해요. 그 다음에 학문, 예술, 문학, 이런 것을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주의와 둘로 갈려요.

프레 로마네스크(pre-Romanesque) 때 집단주의가 번성을 하면서 샤를마뉴(Charlemagne)가 개혁운동을 해요. 르네상스(Renaissance)라고 해서 새로운 문화부흥을 일으켜야 하는데, 왕실로는 부족해서 수도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집단주의를 계속 견지해오던 수도원들이 역량이 축적되었죠. 당시 농업 생산을 담당하던 게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없이는 샤를마뉴의 르네상스 운동이 불가능 했었다는 얘기죠. 학문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왕실과 수도원 사이에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져요.

왕실이 수도원을 탄압하지 않고 지원 하면서 주변에 대한 일정한 세력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수도원은 여러 가지 기술적 학문적 지원을 통해서 샤를마뉴의 개혁정치를 도와주죠. 개인주의는 쇠퇴하고, 이러면서 형성된 전통이 153페이지 위에 보면 공동주의, 집단주의가 발전해요. 이 전통이 거의 중세 내내 이어져요. 나중에 찰스 1세, 제임스 1세 이때 수도원 철폐령 내리고 하는 게, 세속 권력이 커지면서 수도원이 위협이 되니까 수도원을 철폐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내린 것과 비슷하게. 이런 전통이 형성됐다는 거죠.

이 당시의 수도원은 현실과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가져요. 현실적 측면은 말 그대로 정치, 세속적 측면에 개입을 하려하는 거죠. 이상은 다분히 종교적 기독교적인 실현의 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실세계에 자꾸 끼어들면 기독교의 순수성을 구현하기가 힘들어져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기독교가 현실적 측면이 강한 종교이기 때문에 성결 구절을 보면 현실 세계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방법론의 문제인데, 물질적이고 정치적이란 얘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는 건데, 사람을 통해 하다 보니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게 칼 들고 들어서면 똑같이 칼들고 맞서고 하는 거죠. 어쨌든, 155페이지 아래 보면 이상적 측면은 현실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싶어 하는 기독교의 이상을 농축 적으로 집약해 놓은 종교적 상징성이죠.

수도원의 존재를 기독교 적으로 사용해주는 담보가 어디 있냐면 151페이지요. 기독교 얘기할 때 구원받고 천국가세요, 그러잖아요. 요한 계시록에서 성 요한이 천국의 예루살렘(Heavenly Jerusalem)을 말해요. 이게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거기서 얘기하는 천국, 구원받는 천국이란 의미에요, 2차 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천국이 지상에 구현된 도시고, 3차적으로는 성당이죠. 즉, 천국이 지상세계에 모습을 드러낸 게 큰 의미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것보다 작은 성당은 사람이 건축적 매개로 해서 천국을 번안해서 표현한 것으로 정의가 되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성당 말고 수도원이 있지만, 꼭 수도원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벽과 성문으로 둘러싸인 도시. 도시의 중심에,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그리스도 도시는 투명한 용도불명의 재료로 지어졌고, 도시 전체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떠 있었어요. 12개의 성문은 이 도시가 12사도들의 장소였음을 암시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며 떠 있었다는 문구가 이제 고딕성당이 수직선을 통해서 앙천성(仰天性)을 추구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을 건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하죠.

이 성당 건물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이게 놓이는 부지(대지)의 지리적 위치조차도 언덕 위였고요. 건물도 높고 첨탑도 높은 것이 이 문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림 204나 206이 중세 고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수도원도 유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죠. 수도원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문구가 수도원의 존재를 하나님이 허용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건 사실이에요.

▲ 수도원의 구성과 기능

실제로 이 문구를 그대로 나타낸 게 그림 199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 교회 생티에프에요. 벽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수도원의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수도원으로 성 미키엘과 성 갈로를 들 수 있어요. 성 미키엘은 앞에 나왔었어요, 그림 97. 이 건물은 지금 안남아 있어요. 여기서는 3이라는 숫자 성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신의 3이라는 숫자를 상징화 했어요. 3개의 교회로 이루어지고 3개의 성가대석이 있었고 30개의 제단이 있고요. 이런 설명이 157페이지 아래부터 158페이지 위까지 나와있어요.

로마네스크 수도원을 대표하는 게 성갈로죠. 이것도 지금은 안남아 있지만, 양피지에 그린 도면이 있어요. 그림 208이 전체 도면이고, 이걸 복원해서 만든 게 그림 209에요. 규모도 어마어마했고요. 규모에 대한 설명은 15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성 갈로는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예에요. 816~817년에 아일랜드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에서 성 갈로 수도원 배치도가 발표 되었어요. 규모에 대해 논쟁이 많았죠. 너무 크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니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샤를마뉴가 자신과 정치적 연대를 했기 때문에 (큰 규모를) 허용했다는 얘기에요. 좀 전에 봤던 성 미키엘에도 300명의 수도사와 100명의 큰 수도사가 있고 7,000명이 사는 작은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식의 하나의 성주나 성채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거구요.

158페이지 중반 아래부터 159페이지까지 성 갈로의 수도원 전체 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림 208이고요. 도면이 복잡한 거 같은데, 기능들이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간 약간 왼쪽에 치우친 위아래 동그란 공간을 갖는 그게 본당이에요. 그림 208에서 수도원 교회에 중간 오른쪽에 보면 'ㅁ'자형 중정(中庭)이 있어요. 이게 수도원 전체의 중앙이기도 하고 회랑(corridor, 回廊)이라고 불러요.

회랑이 수도원의 중심부고 그것을 초점으로 삼아 상하좌우에 동서남북으로 다른 부속실들이 배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수도원 교회는 교회 이외에도 학습실, 도서실, 수도원장, 방문수도원들을 위한 리셉션 룸, 응접실, 행정실 등이 있어요. 교회 세배를 돌아가면서 회랑에는 난방이 되는 활동실, 화장실, 세면실 등이 있고요.

교회 왼쪽 보면 정사각형 공간이 세 개 있고 맨 밑에는 조그만 직사각형 건물이 하나 있죠. 이런 건물들은 학교, 귀족 방문객 시설이고, 교회 위쪽 보면 병원, 약국 등이 있고요. 교회 오른쪽 위로는 명상용 정원, 과수원, 묘지, 채소밭 등등이 있어요. 교회 오른쪽에는 헛간, 양조장, 제빵소, 방앗간, 탈곡장 등이 있고 아래쪽에는 동물 사육시설이 있어요. 거의 작은 도시예요.

기능을 보더라도 정신활동시설, 생산 활동 시설, 예술 및 공연 활동 시설, 의약활동 시설, 장례시설 등 당시 로마네스크 사회를 구성하던 사회의 모든 기능시설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회랑이 중요한데 건축적으로도 회랑은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고 종교적으로도 여기는 외부와 격리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옛날 한옥 안채 같은데 보면 약간의 격리성을 가졌잖아요. 심지어 시집오면 삼년 뒤에 친정집에 방문할 때까지 한 번도 집밖을 못나가고. 그렇게 격리된 생활을 할 때부터 중정을 두어서 옥외 활동을 병행하는 공간을 두게 되죠. 이 수도원도 워낙 격리된 생활을 하는 데기 때문에 회랑이 그런 기능을 갖는 공간이었어요.

161페이지 아래쪽 회랑의 모습들이 그림 210-211에 나와 있구요. 회랑에서 여러 가지 공부 하는 모습이 그림 212죠. 이 회랑은 3차원 기독교 미술의 경연장이었어요. 특히 기둥의 경연장이었죠. 그림 214가 그 기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조각품에 가깝죠. 로마네스크 미술사 보면 예술적으로 분파를 차지할 정도로 회랑은 3차원 기독교 미술의 경연장이었다는 거예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